

보도시점 : 2026. 7. 20.(월) 11:00 이후(7.21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7. 20.(월)

한-알제리, 정기 직항노선 개설 가능해진다

- 7월 항공회담서 양국 간 운수권 신설, 아프리카 권역 항공 네트워크 강화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7월 7일 17시(현지시간) 알제리 알제에서 개최된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직항노선 개설 및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.
- 한-알제리 항공협정은 '05.1월 체결, '09.7월 발효되었으나, 세부적인 운수권 설정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취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.
 -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에는 인천-아디스아바바(에티오피아) 1개 노선이 유일한 직항 노선으로, 아프리카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 대륙 간 이동 수요에 비해 공급 기반이 다소 부족한 구조였다.
- 이번 한-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여객·화물 공용 운수권 주 4회 설정에 합의하고, 출·도착 공항은 지방공항을 포함하여 양국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회담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, 일부 지중해 인접 국가 환승 수요까지 흡수하여 우리나라로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 연결망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”면서,
 - “향후 실제 정기노선 개설로 이어져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 소속 항공사들의 취항을 적극 독려·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현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장여진 (044-201-4208)
			주무관	김은진 (044-201-4217)